

여가관의 역사적 변천과 개혁주의 여가관

김승욱*

논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현대의 여가관과 기독교의 여가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하고, 바람직한 기독교 여가관으로 개혁주의 여가관을 소개하는데 있다. 먼저 여가를 남는 시간, 활동, 만족감 등의 요소로 정의하고, 쉼, 즐거움, 개인의 발전 등을 얻기 위한 것이 여가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현대 사회와 기독교의 여가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그리스 시대와 로마시대의 고대 여가관, 중세 유럽의 여가관, 그리고 근대의 르네상스와 공리주의 여가관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현대 여가관이 성립된 배경을 요약한 후 현대 경제학의 노동경제모형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여가관을 비판했다. 그리고 교회의 여가관이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과 청교도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하고, 청교도 여가관의 장단점을 지적한 후 현대 교회가 왜 여가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지 설명하였다. 교회의 바람직한 여가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 타락, 구속의 맥락에서 안식에 대한 성경적 견해와 함께 개혁주의 여가관을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여가관의 중요한 요소를 지적했다.

핵심 주제어: 여가, 여가관, 안식, 레저, 개혁주의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I. 서론
- II. 여가의 정의와 기능
- III. 여가관의 변천과 현대 여가관의 특징
- IV. 기독교 여가관의 변천
- V. 개혁주의 여가관: 성경의 안식과 여가
- VI. 결론

I. 서론

인간의 노동을 절약해주는 기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여가시간은 줄었으며(Ryken, 1995: 44-45), 시간기근 현상은 현대인의 상징처럼 되었다(Gibbs, 1989). 바쁘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근면과 성실 등의 덕망을 강조하다보면 여가활동을 게으름이나 사치로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일에 야외에 놀러 가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일부 레저활동을 사치재로 인식한다. 반면에 현대인은 많은 시간을 여가활동을 위해서 사용한다. 특히 고소득국가에서는 여가휴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여가활동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주5일제 논의가 제기되면서 교회가 여가활용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이상원, 2004). 주5일제가 정착되면 유럽교회처럼 세속화되어 한국 교회도 주일 출석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기도 한다. 반면에 주5일제의 정착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므로 이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¹⁾

이러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독교 여가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은퇴 후의 삶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여가를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여가를 올바르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현직에서 물러나야 진정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라이시(Leich, 2001)교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동부장관직을 사임했다. 그에게 있어서는 가족과 여가를 가질 수 없는 직업은 그 일이 비록 장관과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장관이라는 직책을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위하여 버린 것이 가정적으로 생각하면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가볍게 여겼다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여가를 단지 일하지 않고 노는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노동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여가는 더 나은 노동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천국을 이해하기 어렵다. 천국은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다면, 생산 활동이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지낼 것인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

-
- 1) 이종윤(서울교회) 목사는 주5일 근무제는 6일을 일하라는 명령에 위배되며 향락과 소비문화를 부추겨 주일성수를 어렵게 만들어 유럽처럼 교회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고,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애국심을 갖고 옛세 동안 힘써 일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01년 8월 13일자 조선일보). 이에 대해 이억주(한민제일교회) 목사는 출20:8-11 말씀은 주 6일을 모두 일 해야 된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주마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자녀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주 5일 근무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므로 교회의 쇠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론을 전개했다. 또 일요일에 치르는 각종 국가고시를 토요일로 옮기면 바람직하다고 반문하며,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원(2004: 87)은 주5일제는“직장에서의 유급노동의 노동시간을 5일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모든 일을 다 5일로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토요일에 무급의 노동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져 있으므로 주5일제가 안식일 명령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는 일은 없겠지만(창 3:17-19) 일은 계속 되는가? 일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 이라면 여가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지내는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무엇을 했을까하는 등의 질문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 루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너 같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혼내주려고 몽둥이를 다듬고 있었다.”는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가나 레저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에 대한 연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레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1960 년대에 많이 등장하였다(Brightbill, 1960; de Grazia, 1962; Lee, 1964; Pieper, 1964; Dumazedier, 1967; Cox, 1969). 그 이후에도 시간기근현상에 대한 문제와 함께 계속 많은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Parker, 1976; Godbey, 1980; Kelly, 1982, 1983; Johnston, 1983; Ryken, 1995).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교적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다. 가장 많은 것이 <빛과 소금> 등의 교 양지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기독교인의 여가관에 대해서 단편적인 단상 들을 다룬 것들이다(박석규, 1985, 변재창, 1985; 김정관, 1985; 원한광, 1985; 유방열, 1985; 임영수, 1985; 임종표, 1985; 홍정길, 1985; 고용수, 1986; 임택진, 1986; 이경열, 1990; 이나경, 1990; 심창섭, 1990; 김의원, 1990; 이윤국, 1990; 이한민, 1990; 정태일, 1990; 배정훈, 1996; 이대희, 1996; 황화자, 1996) 이 밖에는 <복음과 상황>이나 <신앙과 학문> 등 기독교세계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지에서 노동관과 관련하여 다룬 것이 약간 있을 뿐이다(김승욱, 1986a, 1986b, 1986c. 1992; 김승욱-유혜신, 2002) 그리고 최근에 와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이것이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관심의 여파로 여가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이상원, 2004). 그러나 아직 기독교 여가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여가의 정의와 기능을 살펴본 후에, 현대인의 여가관을

문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3절), 그리고 기독교 여가관의 역사적 변천을 설명한 후에 (4절), 기독교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여가관이 무엇인가를 개혁주의 여가관을 중심으로 논한다(5절).

II. 여가의 정의와 기능

(1) 여가에 대한 정의

여가관(餘暇觀)을 논의하려면 먼저 여가란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가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원래 여가(餘暇)라는 한자의 의미는 ‘남아서 한가한 시간’을 의미하지만, 현대인이 여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영어의 레저(leisure)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라이켄(Ryken, 1995: 23-32)에 따르면 레저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시간과 관련하여 정의하는 것으로 의무나 책임이 따르는 일을 하지 않는 ‘자유 시간(free time)’을 일컫는다. 여가라는 우리 말 표현이 이 경우에 가장 적절하다. 영어의 leisure는 두개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라틴어 어원인 ‘허락된(licere)’인데 이는 의무감에서의 자유를 말한다. 두 번째 어원은 그리스 어원 ‘skole’인데, 이에 해당하는 라틴어는 ‘schola’이다. 영어 school의 어원인 이 단어는 귀족들이 일에서 자유롭게 되어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교육함으로써 자유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레저라는 단어는 단순한 자유시간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일을 포함한다. 라이켄(Ryken, 1995: 24)은 여가에 대한 현대의 학자들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여가란 만족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선택된 활동이다(Kelly, 1982: 7).”

“여가는 인생의 짚(parenthesis)이다(Johnston, 1983: 35).”

“여가란 개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쉬기 위해서건,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건 또는 자신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건, 일이나 가족 또는 사회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난 활동이다(Dumazedier, 1967: 16-17).”

“여가란 생계나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을 말한다. 그것은 자유로운 시간이며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나 선택에 따라서 사용하는 시간이다(Brightbill, 1960: 4).”

“여가란 일이나 다른 의무감에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며, (비교적) 자유의 감정에 의해서 특정 지워지는 행동들도 역시 포함한다(Parker, 1976: 12).”

이러한 정의들의 공통점은 여가라는 것이 일이나 다른 의무감과 대조가 되는 개념이며,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떠한 활동이 여가가 되려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스포츠도 직업으로 하면 여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개념의 여가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일이 많이 있을 때 쉽 이 의미가 있다. 정년퇴직했거나 실업을 당하여 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 시간들이 지루할 뿐이고, 여가의 효용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

여가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떠한 특별한 ‘활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가활동’이라고 표현한다. 독서, 음악회, 레크리에이션, 오락, 스포츠, 여행, 취미활동 등을 일컫는 표현이다. 여가 시간이 있어야 여가활동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여가를 시간의 개념만으로 보는 것은 필요조건은 되지만 여가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여가를 특별한 활동과 연결을 시켜야 여가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여가를 못 즐기는 것이 아니다. 어떤 활동은 그 자체가 여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활동이 여가인지 일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안 해도 그만이고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는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위해서 골프를 친다면 이것은 여가가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 없이 취미활동으로 골프를 친다면 이 골프 치는 시간은

여가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감상하는 성악가는 그것이 여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식사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을 위해서 하는 식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더라도 일(work)이 될 수 있다.

라이켄은 인간의 특징을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으로 파악했던 호이징가(Huizinga, 1950)가 말하는 놀이(play)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놀이(play)는 “일상의(ordinary)” 생활 이외의 아주 의식적인 자유 활동이다... 그것은 세속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활동이고, 그것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활동이다. 고정된 규칙에 따라서 자신의 적절한 시간과 공간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일상 안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사회적 집단의 형성을 촉진한다.

라이켄은 호이징가의 놀이개념이 여가의 개념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호이징가가 정의하는 놀이의 요소를 여가가 모두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yken, 1995: 2). 이런 면에서 볼 때, 여가란 단순히 남는 시간만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활동과 관련이 된다.

세 번째로 여가는 어떠한 심리적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여가가 된다는 것이다. 여가활동은 즐거움과 만족감이 동반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며,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활동을 여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활동이 자유롭게 좋아서 선택한 일이고 나름대로의 만족감이라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족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여가는 단순히 남는 시간이나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든지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를 가장 강력히 주장한 조셉 피이퍼(Pieper, 1998)에 의하면

여가는 “정신적 영적 태도이다 - 그것은 단지 외부적인 요소의 결과가 아니며, 남은 시간, 휴일, 주말, 또는 휴가 등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첫째, 마음의 태도, 즉 영혼의 상태이다(Ryken, 1995: 27에서 재인용).”라고 했다. 마음이 이러한 평온을 얻으려면 활동을 자제하는 태도, 내적 평안, 일이 되어지는 대로 맡김, 마음의 수용적 태도, 악착같이 붙잡으려는 것을 회피하는 태도 등의 “현명한 수동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리하면 레저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의무감이나 필요성에서 자유로운 시간이고, 둘째는 어떠한 특별한 활동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셋째는 만족감, 풍요로움, 미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휴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Ryken, 1995: 28).

(2) 여가의 기능

이렇게 정의되는 여가의 기능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자. 두마제디어(Dumazedier, 1967: 14-16)는 여가의 가장 중요한 세 기능을 (1) 긴장해소(relaxation), (2) 오락(entertainment) 그리고 (3) 개인적 개발(personal development)로 꼽았다. 첫째, 인간은 긴장을 풀지 않으면, 육체적이나 피곤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일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일에 질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 여가의 한 요소인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이 재(re-) 창조(creation)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쉬는 육신과 정신을 새롭게 한다.

둘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여가활동이 필요하다.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간은 타락 이후에 육체적 활동(work)이 희동(喜動=즐거운 활동)이 아니라 노동(勞動=고달픈 활동)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즐거움을 얻는다.

셋째,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무적인 일에서 떠날 필요가 있다. 여가시간

에 독서나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도 가질 수 있으며, 여가시간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일터에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여가시간에 자신이 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다.²⁾

인간은 노동뿐만 아니라 여가를 통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의 의미는 과도하게 평가하는 반면에 여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 “여가는 자아(selfhood)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삶의 영역이다(Kelly, 1983: 23).” 라이켄(Ryken, 1995: 29)은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구성된 여가활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합하여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고 했다.³⁾

여가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여가를 통해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그라서(Glasser, 1976: 36-52)는 여가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는 분리할 수 없다고 했다(Ryken, 1995: 30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인간은 여가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여가는 인생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위치한 것이다. 인생의 만족감이 직장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감과 더 큰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실증분석도 있다(Godbey, 1980, 40).

또한 여가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여가가 필요

2) 가드베이(Godbey, 1980: 289-91)는 여가의 기능을 기쁨(pleasure), 배움(learning), 놀이적 요소(playfulness), 축하(celebration),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등의 요소를 들었다. 또한 로버트 리(Lee, 1964: 35)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여가는 온전한 인생을 재발견하기 위하여 배움과 자유, 성장과 표현, 휴식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Ryken, 1995: 29에서 재인용).

3) 그는 대부분의 인간은 여가활동의 질에 대해서 보다 민감한 반응을 하며, 여가가 자신의 의미 있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 여가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고 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여가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다. 특히 가족들과는 일을 통해서 보다는 여가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따라서 가족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는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이 필요하다. 또 사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레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경우에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더 즐겁고, 대화거리가 있고, 인간관계도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여가의 사회적 기능은 교회건 일반 사회건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 안에서 '친교'도 여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활동에서 여가활동에 치중하면 교회의 기능을 왜곡시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교회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단결시키는 것은 여가활동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며,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여가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높여야 한다(Ryken, 1995: 30).

III. 여가관의 변천과 현대 여가관의 특징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여가에 대한 정의와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여가관이 시대를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오늘날의 여가관이 탄생했으며, 현대 여가관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여가관의 역사적 변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여가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 사람들은 여가에 대해서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1952)는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가는 필요조건이라고 인식했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피할 수 없듯이, 여가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일을 한다."고 파악했다

(Ryken, 1995: 85에서 재인용).

플라톤(Plato)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여가를 단순한 남은 시간 정도로 인식하지 않았다. 여가는 세계에서 자유로워진 시간에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은 일부 엘리트 계층은 세계에서 자유롭게 되어 교육을 통해서 전인적인 인격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여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의 여가관은 노예노동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였다.

로마시대에 들어오면서 여가관이 대폭 수정이 되었다. 그리스에서는 명상이나 여가의 정신적 삶에 관심을 가진 반면에, 로마에서는 대규모 스포츠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소수의 부유한 계층은 정원과 수영장이 달린 별장에서의 여유 있는 삶을 즐겼다는 면에서 로마시대의 여가관은 현대의 여가관과 유사한 면이 있다. 로마시대의 여가관이 현대에 미친 영향은 첫째, 여가를 대중들의 공공여가활동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로마시에는 800개의 대중 목욕탕이 있었고, 극장, 공원, 스타디움, 체육관 등이 있었다. 거기다가 정부가 군대가 주최하는 페스티벌도 많았고, 규모도 컸다. 예를 들면 전차 경기장인 막시무스 서커스(Circus Maximus)는 385,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 두 번째는 여가를 정치에 이용해서 우민화 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돌파구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그리스 시대에 여가가 교육받은 엘리트들의 문화적 전유물이었던 것이 로마시대에 와서 보다 소비재에 가까운 것으로 변했다. 특히 일반 대중의 대량오락물로 그리고 일부 부유층의 사치재로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여가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일상적인 것으로 변했다. 그리고 다른 극단으로 일부 소수 부유층의 사치스러운 자아몰립적인 것으로 변했다(Ryken, 1995: 87).

중세 로마 가톨릭의 여가관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하에서는 로마의 이러한 여가관에 대한 반발로 여가

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즐거움을 피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여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터툴리안(Tertullian)들은⁴⁾ 로마의 축제를 모두 거부했다. 모든 예술은 사탄이 처음부터 설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문화에 대해서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다.⁵⁾ 캘빈과 키이퍼로 이어지는 개혁주의 문화관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Augustinus, 10권: 31)도 심지어는 먹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먹는다면 죄악된 것이라고 했다는 것을 근거로 어거스틴도 즐거움의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yken, 1995: 88).

그런데 당시에 안식일을 엄격히 지켰으므로 쉬는 중요시 여겼으며, 따라서 기독교적 여가관의 기초가 놓아졌다고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중세의 전통은 예배를 위한 종교인 명상이었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의미의 여가활동을 중시한 것은 아니다(Ryken, 1995: 89). 중세의 안식일의 명상은 보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 의무로써 이것은 여가보다는 일에 더 가깝다. 따라서 중세시대 서구에서는 여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4) 터툴리안(Tertullian)은 카르타고의 로마 백부장의 아들로 태어난 법률가였다. 그는 자연히 법학, 수사학, 희랍 고전을 학습하고 철학에도 정통했다. 하지만 개종 후엔 일체의 사치를 버리고 엄격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로 일관했다. 이는 자연히 희랍-로마 문화를 배격하는 자세로 연결되었다. 그는 원죄가 사회를 통해 선하게 태어난 영혼에 오염된다고 보았다. 신자의 투쟁의 대상은 자연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문화라고도 했다.

5) 리차드 니버(Niebuhr, 1986)는 이것을 첫째 유형 즉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라고 명명했으며, 그 대표자 중의 하나로 터툴리안을 꼽았다. 이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2:15)”라는 말씀을 근거로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에도 문명을 도외시키고 사는 퀘이커(Quaker)교도와 메노나이트(Mennonites)나 아미쉬(Anish)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근대 르네상스와 공리주의 여가관

16-17세기에 서구에서는 르네상스 사조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전적 가치와 인본주의적 가치가 다시 태어났고, 그 결과로 예술분야에서 창의성이 꽃 핀 시기이다. 르네상스의 기념비적 작품인 토마스 모어(More, 1516)의 <유토피아(Utopia)>에 등장하는 낙원에서는 모든 시민들은 하루에 6시간 밖에 일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일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교양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주고 각자의 지성을 연마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이상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린다. 그들은 새벽에 공공강연을 듣고, 책을 읽으며, 음악을 듣고, 정원을 산책한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여가활동에 교육을 매우 강조하였다. 교육은 특권 계층의 남성들에게 국한된 것이었다. 그들의 이상은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었다. 그러므로 르네상스 시대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 음악, 체육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교육했다. 학식 있는 대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으며, 교육과 여가시간의 선용은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은 현대의 여가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이후에 여가에 대한 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공리주의이다. 벤담(Jeremy Bentham)은 행복을 효용과 같은 것으로, 기쁨을 이익과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 밀은 가치는 효용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⁶⁾ 이러한 공리주의적 정신은 산업사회에서 더욱 널리 퍼졌다. 공장이 보급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효용이나 유용성이라는 개념이 이름답다거나 인간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등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유용한 개념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물질적인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만이 선하다고 하는 공리주의적 가치관은 일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는 생산

6) 이 주장을 가장 노골적으로 한 학자는 벤담과 밀(J. S. Mill)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된 실용주의의 등장이다.

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가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 여가는 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쉽도록 서만 의미를 가진다. 즉 여가의 목적이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변한다.

(2) 현대의 여가관 - 이상으로서의 여가활동

산업화는 여가와 일을 더욱 구별하게 만들었다. 공장제도가 널리 확산되어 일터가 집에서부터 공장으로 옮겨가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 면에서 삶과 분리되자, 여가는 일과 더욱 더 분명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되었다. 게다가 산업사회에서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더욱 여가시간이 줄어들자, 여가 자체가 높은 만족을 가져다주는 효용재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간이 축소되면서, 이제는 일을 위해서 여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여가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졌다. 주말에 그리고 휴가 기간에 잘 즐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직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보다는 여가활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⁷⁾

경제학의 여가에 대한 가정

지금까지 여가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

7) 레저활동이 다양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에 지쳐서 여가시간에 TV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여가시간의 절반을 TV앞에서 보낸다고 한다. TV가 정보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TV가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는 등의 해악을 지적한다. TV, VTR, 영화 등의 보급으로 여가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았다. 이제 현대인의 여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대 경제학은 하루 24 시간을 노동하는 시간과 여가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 그리고 시간을 재화와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간을 쓴다.’ 또는 ‘시간을 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신고전학파라고 불리는 주류경제학에서는 노동 자체는 효용을 주지 않고, 노동으로 버는 수입이 효용을 준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여가 시간은 재화처럼 그 자체가 효용을 준다고 가정한다. 노동 그 자체는 인간의 효용을 감소시키지만 그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효용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인간은 노동의 결과로 번 소득을 가지고 재화를 구입해서 만족을 얻을 것인가, 여가를 즐길으로써 만족을 얻을 것인가를 두고 선택을 하는 존재로 상정한다. 경제학에서는 이 모델을 통해서 인간이 임금이 올라가면 점차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며, 아울러 임금이 아주 많이 올라가면 어느 시점부터는 인간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더욱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인다(김승욱·유해신, 2002).

이 모델에서는 여가를 시간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인간은 가능한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시간당 임금을 높임으로써 가능한 적은 시간을 노동에 투입하고, 그 소득으로 재화와 남은 시간을 알차게 효과적으로 즐길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노동은 여가 시간을 빼앗는 것이 되며, 인간은 가능한 적게 일하고 여가를 잘 즐기려고 하는 존재가 된다. 경제학자들은 이 모델이 단순하지만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면 소득 증가에 따라서 어떠한 여가활동을 즐기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된다. 그리고 여가를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가활동을 일하듯 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즉 여가가 또 하나의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가활동을 일하듯이 엄격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 그래서 여가활동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추구한다. 그리고 경쟁이 여기에 들어온다. 그리고 의무감에 여가활동을 한다. 문화시민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또는 뒤질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일들로 여가활동이 변한다. 날씬해

지기 위해서 수영이나 에어로빅을 해야 하고, 모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골프를 배워야 한다. 유행가를 듣고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로 부터 소외당하기 때문에 듣고 본다. 이러한 활동들을 의무적으로 하면, 그것은 “일” 이지 더 이상 여가활동이 아니다. 더구나 레저가 점차 전문화되어가고 있어서 그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결국 여가활동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다.

IV. 기독교 여가관의 변천

지금까지 그리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를 중심으로 여가관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기독교의 여가관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교회의 여가관이 세속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 특히 교회가 정치를 지배하던 중세 유럽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여가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여가에 대한 인식이 세속사회와 달리 어떻게 변했는지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는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데 반하여, 교회는 한편으로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가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여가를 잘 갖지 않는 것을 좋은 신앙의 표상으로까지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주5일제의 실시 등에 대한 사회변화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앙인이 사회 활동 과정에서 겪는 갈등에 대해서 교회는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현대의 교회가 여가활동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는 의무, 신실, 봉사, 자기부정 등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자기만족, 자기 성취, 도락의 추구 등

을 특징으로 하는 레저 등의 여가활동과 부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경건의 시간, 성경 공부 등에 힘쓰고 교회봉사나 전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한가한 시간이 별로 없다. 또 구제와 헌금에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지출할 돈도 별로 없다. 또 일부에서는 여가활동에 돈을 쓰면 죄의식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가활동에 소극적으로 되기 쉽다.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레저에 대해서 소극적이 된 이유는 신학 때문인데, 기독교가 각 시대별로 여가활동에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살펴보자.

구교의 여가관

초대 교회는 로마의 박해 아래서 현세적인 안식이나 여가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반문화적 문화관이 지배적이었으며, 여가는 유대인의 안식일 전통을 지키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의 안식보다는 내세적 안식에 관심을 가졌다(김의원, 1990).

그 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이후에 문화에 대한 인식은 수용적으로 크게 변화했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 시대는 성속에 대한 이원론(the sacred-secular dichotomy)적 문화관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직업만이 성직이고 나머지는 세속직으로 인식했다. 또 우주를 세속적인(earthly) 영역과 하늘에 속한(heavenly)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삶의 중심에 계시므로 인간의 영혼은 기도, 예배, 성경읽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식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에만 영적인 것이고, 그 이외의 활동은 세속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일하고 쉬는 일상은 종교적 행위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과, 세속적인 것은 세속적인 방법에 맡기면 그만 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육과 영으로 구분하는 이원론도 한 몫을 해서, 육체와 관련되는 여가활동을 불건전한 것으로 규정했다.

게다가 영혼구원만을 거룩한 백성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여가활동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었다. 전도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인식하면 그 이외의 다른 문화활동을 모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 여가활동은 적절한 대접을 받을 수 없었다.

신교의 여가관 (Puritan viewpoint)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도 여가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했을까? 특히 청교도들은 근검, 절약을 강조하며 금욕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을 중시하고 쾌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심창섭, 1990). 그러나 라이켄(Ryken, 1995: 113-18)은 청교도의 여가관이 왜곡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청교도의 여가관에 대한 오해를 지적한다. 첫째, 청교도들이 즐거움의 추구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다. 왜냐하면 청교도 사상가들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한숨짓고 우울할 것이라는 것은 사탄의 책략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 청교도들이 모든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도 오해다. 한스-피터 와그너(Wagner, 1982)의 <17세기 초 미국 청교도들의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태도>에 의하면 청교도들은 사냥, 낚시, 볼링, 독서, 음악, 수영, 스케이팅, 궁술 등을 즐겼다. 그리고 1647년에 미국 의회를 장악한 청교도들은 매월 둘째 화요일은 근로자들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해서 모든 상점과 공장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문을 닫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청교도들이 어떤 레크리에이션은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도 있다. 그것은 오락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영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인식일을 범하기 때문이었다.

셋째, 여가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청교도들이 중세 이후에 유지되어온 휴일을 많이 없앴다는 것도 오해다. 중세 가톨릭 하에서 지켰던 종교상의 축제

일이 자그마치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년에 115일이나 되었다. 그러한 축제일이 줄어든 것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일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 밖에 정부도 선거일 등 여러 가지 공휴일을 제정하였고, 청교도들도 추수 감사절 등 새로운 축제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종전의 가톨릭 축제일이 줄어든 것이지, 청교도들이 축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다.⁸⁾

이와 같이 종교 개혁가들이나 청교도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자들과 달리 여가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종교 개혁가들의 여가관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건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교도들의 여가관을 중심으로 신교 여가관의 장점과 단점을 라이켄(Ryken, 1995, 118-22)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청교도 여가관의 긍정적인 면은 첫째, 여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다는 것이다. 가타커(Gataker, 1632: 18, Ryken, 1995, 118에서 재인용)는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고 간주했다. 그리고 아담스(Adams, 1861: 134, Ryken, 1995; 118에서 재인용)는 하나님을 여가의 기쁨을 주는 자로 묘사했다. 이러한 견해들은 여가를 단지 좀 더 일을 잘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가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써 매우 발전된 인식이다.

둘째, 청교도들의 종교 활동도 여가의 성격을 지녔다. 청교도들이 물론 여가라는 이름 하에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종교 활동 성격이 여가가 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많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가가 삶의

8) 이 밖에 청교도의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오해임을 라이켄은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청교도들이 교회에서 오르간과 예술 작품을 제거했기 때문에 예술이나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는 것도 오해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가톨릭의 예배방식에 반대한 것이지 음악이나 예술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우중충한 갈색의 단조로운 옷을 즐겨 입고 유행과 관계없는 옷을 입기 때문에 삶에서 색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도 오해다. 청교도들은 검은색이 위엄과 예식에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주일이나 특별한 행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색을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재충전이나 휴식을 추구하는 것인데, 종교 활동 역시 이러한 성격이 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여가가 추구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청교도들은 암묵적으로 여가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교도들은 여가활동에도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퍼킨스(Perkins, 1631: 142)는 여가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판단 기준으로 (1) 뛰어나야 하며, (2)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고, (3)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하며, (4) 시간이 너무 많이 들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을 들었다. 브레이일스포드(Brailsford, 1969: 130)에 의하면 청교도들은 춤은 음란성 때문에, 축구는 폭력성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일반적으로 청교도들은 동물 학대나 위험하기 때문에 동물을 미끼로 사용하는 행위나 닭싸움 등을 금했고, 선술집에서 하는 경기는 취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비도덕적인 희극이나 로멘스 소설도 반대했다(Ryken, 1995: 120).

이와 같이 청교도들이 근본적으로 여가활동을 존중했으며, 여가에도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먼저 부정적인 것은 악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서, 여가의 도덕적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여가활동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점이다. 불경하지 않고 외설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여가활동의 상당 부분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해서 매우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심지어는 극장이 돌림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 남자 배우가 여자 옷을 입었다, 교회 모임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극장 등 여러 문화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청교도들은 일을 너무 중시여긴 나머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로 여가를 폄하하여 평가함으로써 여가를 전인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교도들은 여가를 시간낭비로 생각했으

며, 레크리에이션을 수용하더라도, 그것을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서 여가의 효용을 판단함으로써, 여가를 일의 일부분으로 만들었다.

현대 교회 잘못된 여가관

오늘날 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여가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속적인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들과 똑같이 여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Ryken, 1995: 152-56). 첫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여 여가 즐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번영의 복음(The Gospel of Prosperity)’을 강조하는 미국의 텔레반젤리스트(televangelist)들이나 삼박자 구원을 강조하는 한국의 일부 신학에서는 성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공을 우상으로 추구하다보면 여가를 희생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다.⁹⁾

둘째는 시간을 지혜롭게 계획적으로 잘 활용하여, 덜 바쁘게 살자는 시간관리 운동을 기독교적으로 인식하여 수용하는 태도이다. 물론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칭지기로써 미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시간관리운동의 목표와 동기는 쓸데없는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거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는 이렇게 확보된 시간으로 행복을 추구하자는 것이므로 여가의 우상화와 유사한 태

9) 이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은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다(시 112:3).”는 구절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뭇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후략) (막 10:29-30)”라는 구절이다. 라이켄(Ryken, 1995: 152-56)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는 이들은 성경에서 이러한 측면과는 반대로 믿는 자들이 고통과 희생을 당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 받으러 왔으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고난을 받는데, 이러한 부분과의 균형을 보여주지 못하고 몇 구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세속적인 성공을 우상으로 여기는 경향과 차이가 없다.

도이다. 이것 역시 여가의 의미에 대한 진정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V. 개혁주의 여가관

이와 같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여가에 대한 시각이 매우 왜곡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개혁주의 여가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의 맥락에서 성경은 여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성경에는 여가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대신 오늘날의 여가와 매우 근접한 안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안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창조와 안식

하나님은 매일 창조를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로 맺으며, 창조 사역의 결과를 평가하시며, 마지막 날에는 쉼에 들어갔다(창 2:2-3). 그리고 이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출 20:8-11).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단지 일을 쉬었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인간들에게는 안식일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쉬라고 하셨는데, 영적인 안식과 정신적인 안식은 예배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므로 예배를 드리신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니 육적인 안식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일에서 떠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의 결과를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가에는 일에서 떠난다는 것과, 자신이 이룩한 것을 축하하는 요소가 담겨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그저 아무것도 안한다거나 게으르

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6일째에 창조되었고, 따라서 인간의 삶을 시작한 첫날은 안식일이었다. 즉 인간의 삶은 가족과 함께 휴식하는 삶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인생의 절반은 휴식이다. 하나님은 휴식을 주셨고 휴식은 중요한 삶의 목표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휴식을 얻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휴식이 있어야 한다(정태일, 1992: 105).

이렇게 일에서 쉬라는 것도 창조명령(creation ordinance)이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겔 20:12) 제4계명에 이것을 명령하셨다(출 31:13-17).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리고 일과 쉬의 리듬이 있어야 한다. 일만 해서도 안 되고, 쉬기만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이 쉬고 일을 병행하도록 창조하셨다. 마찬가지로 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쉬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功利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 기쁨 등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생존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누리도록 주셨다(요 10:10). 꼭 필요한 것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삶은 창조의 한 모습이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먹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은 나무를 주셨다(창 2:9).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기능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아름답다. 여가란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이상을 포함하지만, 확실히 미의 경험을 포함한다. 아름다움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이외에는 쓸데가 없다. 성경에는 그 이외에 아름다움의 용도를 말한 적이 없다. 시편 기자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완전성의 하나로 간주한다(시 19:1).

2. 타락과 안식

이러한 창조의 아름다운 안식과 여가의 모습이 타락으로 인하여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투기, 술 취함, 방탕 등 비도덕적으로 바뀌었다(갈 5:19-21). 특히 여가활동이 일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쉽 그 자체를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눅 12:19)”고 독백한다. 이 부자는 여가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가를 아무리 즐겨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전도서를 통하여 이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전 2:1-11).

아모스 선지자는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워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등으로 묘사했다(암 6:4-6). 바울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딤후 3:4), “각색 정욕과 행락에 중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딤후 3:3)로 묘사하고 있다.

3. 구속(하나님의 부르심)과 안식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시면서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신 5:15).”

이 안식은 초대가 아니라 명령이며,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는 쉬어야 한다. 그리고 쉬는 수고의 대가이다. 그리고 이 쉬에는 또한 원기를 회복하다는 의미가 있다.

성경의 “나 여호와가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출 31:17).”는 구절에서 ‘평안하였음이니라’라고 번역된 부분이 영어로는 ‘refreshed’ 즉 원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쉼을 인간에게도 명령하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역시 사역 중에 일에서 떠나 쉬셨다. 예수님도 바쁜 삼년의 공생애 기간동안에 일에서 떠나 쉬는 시간(막 6:45-47)과 기도하는 시간(눅 6:12; 9:28)을 가졌다. 제자들에게도 쉬게 하셨다(막 6:31). 그리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임을 가르치셨다(막 2:27-28).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배우면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며(마 11:29), 염려에서 벗어나라고 하셨다(마 6:25-34).

구약에는 무고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노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민 28:18, 25, 26). 그리고 매 7년마다 2년분의 소출을 준다고 하면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다. 그리고 50년마다 오는 희년에는 3년분 소출을 준다고 경작하지 못하게 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은 천국에서 완성된 삶의 표상이다. 천국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안식만이 있다. 천국에서 안식은 일에 이 지상에서 일에 대한 보상이고, 이 세상일의 완성이다. 히브리서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히 4:9-11)”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다(히 3:11, 18). 그리고 이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다(계 14:11). 이러한 것을 보면 구원의 완성은 안식과 관련이 많고, 구원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은 안식을 누리며, 여가를 갖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은 녹초가 되도록, 일에 몰리도록 일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먼 것이다.

타락한 인간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의미의 구속사역은 여가활동과

관련이 많다. 왜냐하면 구속의 목적이 인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원래의 완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데, 여가활동(recreation)의 목표도 역시 인간을 재창조(re-creation) 즉,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인간은 여가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 일과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동이 피로움을 동반하는 타락한 세계에서 많은 경우에 일에서 떠난 시간에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의해서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정체성이 발견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가활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기 위한 쉽고 회복이기 때문에, 여가활동은 기독교인에게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가활동은 경배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둘 다 일과 의무에서 잠시 멈추어야 가능하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인간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일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위해서 재창조, 재충전, 재소명의 목표를 가진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조셉 피이퍼(Pieper, 1998: 48)는 “경건한 경배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여기는 게으름이 되고, 노동은 비인간적인 것이 된다.”며 여가의 근본이 경건한 경배라고 했다.

4. 여가의 기능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 여가의 청지기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인식하는 개혁주의 인간관에 비추어볼 때 여가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여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개혁주의 여가관의 핵심이다. 여가를 너무 누리는 것도 아니고, 여가를 너무 멀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가를 적절히 누리면서, 또한 여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가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첫째, 여가는 우리 각자의 개인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기독교인도 여가를 자신의 육체적인 안식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쉼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자신의 만족 (self-pleasure)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장래의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다(히12:2). 따라서 여가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예수님의 황금률에도 자신에게 바라는 것과 같이 남에게 하라고 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편 23편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비유하고 있다. 목자는 양에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다. (2절) 인간이 쉬는 것은 예외적이거나 이기적인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각자가 받은 선물이다.

둘째,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가는 개인적인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여가의 사회적 측면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는 가족이다. 따라서 여가활동은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떠한 여가활동을 하느냐가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여가활동의 패턴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다른 곳에서 배운다. 여가활동은 학습 행동이다. 사람들은 여가시간에 그들이 배운 것을 한다. 여가활동의 가치를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일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행복할지라도 가정에서의 의무는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족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영역은 친구와 친족의 영역이다. 여가활동을 함

깨하지 않고는 우정을 유지하기 힘들며,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것은 소원한 우정을 회복시켜준다. 이는 사랑하는 사이에도 적용이 된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가활동의 공유하는 부분이 없으면 온전한 사랑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여가의 사회적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올바른 여가관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는 교회가 사교하는 장소이냐고 반문하며, 여가에 관련된 주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는 청소년 프로그램 등 여가활동을 주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적 기능과 영적 기능을 너무 구별할 필요 없다. 교회는 물론 영적인 모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지만, 친교도 역시 영적인 영역임을 알아야 한다.

사실 교회에서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배, 성경공부, 기도회 등은 여가와 같은 종류를 나누는 것이다. 안식일에 육체적으로 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고,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체적인 쉼이라는 의미의 여가시간을 갖는 것은 주일성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주일을 욱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가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주일 오후의 자유시간도 성스러운 여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셋째, 축제로서의 여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축제도 역시 사회적인 것의 일부이지만 차이점은 축제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행사라는 것이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의 기독교적 축제일이 그러한 예이고, 추석이나 설날, 광복절 등 민족적, 국가적 축제도 있다. 하비 콕스(Cox, 1969)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축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인간을 축제하는 존재 ‘homo festivus(이태릭체로)’로 정의했다. 성경에도 부림절(에 9:17)이나 유월절 등 많은 축제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제의 모형이 되기도 한다(숙 8:5)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추석이나 구정 등 민족적 축제는 조상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행사로 바뀌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의 기독교의 축제도 약화

되어서 축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행사로서 축소되고 있다. 진정한 축제와 여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즐거워하기 보다는 의례적인 행사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에 한국 사회는 축제다운 축제는 2002년 월드컵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진정한 축제는 거의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는 올바른 여가관과 축제관을 심어주지 못한 교회의 책임도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VI. 결론

지금까지 여가의 정의와 기능을 설명하고, 현대 사회와 기독교의 여가관을 비판하고, 개혁주의 여가관을 창조, 타락, 구속의 맥락에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기독교 여가관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여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맛나도 칠 일째에는 내리지 않았고, 이 날은 안식일로 주었으므로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출 16:29).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이를 어기면 죽이겠다고 했고,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고 했다(출 31:15-17). 왜냐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 칠일에 쉬어 평안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일에서 떠나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임영수, 1985).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건강을 유지하려면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투우르니에, 2001). 인간은 일만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에서 지쳐서 일을 싫어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쉬는 것을 명령하셨다. 인간이 가장 적절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인류학에서도 인간은 레저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한다. 따라서 일에서 떠나 쉬는 것은 이기적인 것

이 아니다. 오히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더 이기적인 것이다. 안식일에 쉬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발상이다.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안식과 예배는 일에서 떠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진정한 안식은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에서 떠난다는 것이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일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늘 일에 가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일에서 떠나려면 일의 염려에서 떠나야 한다. 따라서 안식이 단지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목적과 나의 존재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음미할 때 진정으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는 진정한 휴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존 스토틀 목사는 휴식이란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성경에도 안식일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즐거워하며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라고 하셨다(마 6:25-34). 이와 같이 여기는 단지 남는 시간도 아니고, 보다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도도 아니다. 안식 자체가 예배이며 삶의 목적이다.

둘째는 여가활동과 교회활동을 구별해야 한다. 진정한 안식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육체적인 쉼을 등한시하기 쉽다. 여가활동을 교회활동으로 대체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많은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쳐있는 모습을 본다(이나경, 1990).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열심인 기독교인이 많다. 뿐만 아니라 일년에 한 번 얻는 여름휴가도 교회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 직장인도 많다(임택진, 1986). 이렇게 교회봉사로 인해서 쉬지 못해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에서 피하기 위해서 대교회로 향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교회가 친교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상실

해 가고 있다. 교회봉사를 너무 안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교회 일을 많이 해서 지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흠으로 만드셨다. 따라서 육체적인 쉼이 없이는 영적인 안식도 있을 수 없다. 안식일은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안식과 기쁨도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여가시간을 교회봉사에만 보내게 되면 오히려 일에 질려서 부작용을 낳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 쉼과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주일에 영적인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레저활동도 허용이 되어야 한다(이상원, 2004: 77).

셋째는 여가를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성경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딤후전 5:18), 여기서 그 삯에는 단지 돈만이 아니라 쉼도 포함된다. 따라서 인간은 수고의 대가로 쉼을 얻을 자격이 있다. 여가와 관련되어 가장 공통적으로 범하는 잘못이 비실용적인 여가를 실용적인 어떤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많은 경우 여가를 일에 부속되게 한다. 즉 여가를 일을 더 잘하게 하는 데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다(정태일, 1990). 이는 잘못된 것이다. 여가활동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Homo Sapiens)”이나 “만드는 인간(Homo Faber)”를 넘어서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로 파악했던 호이징가(Huizinga, 1950)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놀이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이징가의 놀이라는 개념은 여가라는 개념과 일치하는데, 결국 여가와 일은 모두 놀이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천국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도 놀이의 행위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여가활동은 그 자체가 존재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놀이 등 여가활동에서도 일하듯이 지나치게 몰입하는 함정에 빠진다. 예를 들면 독서를 하더라도 그 자체를 즐기기도 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하기 때문에, 독서가 숙제가 되어버린다. 또 여가는 일로부터 떠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가활동을 하면 또 다른 일을 하

는 셈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취미에 너무 몰두해서 모든 자유시간과 여윌 돈을 다 쏟아 붓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무슨 취미든지 너무 몰두해서 본분을 잊어버린다면 바람직한 레저활동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노동에 대한 건전한 관점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일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일터의 경쟁적 정신을 벗어나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활동을 즐길 수 없다.

다섯째는 기쁨향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려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변화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만약 쾌락을 나쁜 것으로 간주한다면, 여가나 놀이도 역시 그렇게 간주하기 쉽다. 여기활동은 원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놀이 윤리는 그러한 쾌락주의(hedonism)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의무감이나,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나, 육적인 즐거움을 악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금욕주의(asceticism)가 기독교 전통에 강하게 흐른다.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지나치면 기독교인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삶으로 의도되어야 한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창 2:9). 그리고 즐거움은 시편의 반복되는 주제이다(시편16:6, 11; 133:1) 특히 아가서(2:3)나 잠언(5:19)에는 남녀의 사랑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지혜의 아름다움(잠 2:10), 땅의 아름다움(말 3:12) 등이 나오며, 하나님 중심적인 쾌락주의는 전도서의 주제이다(전 2:24-26) 즐거움은 선한 노동 윤리와 마찬가지로, 전도서 기지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¹⁰⁾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전 9:7)” 그리고

10)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전 5:19).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찌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전 9:9).” 등의 말씀에 비추어보아도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선한 쾌락주의’이지 ‘도피주의’ 즉 영적인 세계를 위하여 일상의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신약에도 즐거움 추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다. 그리고 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¹¹⁾

칼빈(Calvin, 1972, 1:720, Ryken 264에서 재인용)은 하나님이 음식을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필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것도 있다고 했다. 그는 “쾌락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실체들을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배은의 태도임을 강조하는 한편, 다만 언젠가는 쾌락을 주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날이 오기 때문에 쾌락에 집착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절제 안에서 쾌락을 향유하도록 권고한다(Calvin, 1972, 3: 10. 이상원, 2004: 79에서 재인용).”

그리고 존 피퍼(Piper)는 <하나님을 바람: 기독교 쾌락주의에 대한 묵상(Desiring God: Meditations of a Christian Hedonist)>에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시 37:4)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가를 위해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든 즐거움은 그 자체는 선한 것이며, 모든 악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레저활동을 위해서 연구와 교육을 해야 한다. 여가활동 등 놀이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독교적인 바람직한 여가활동이 어떠한

11)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딤후전 6:17)”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 루이스(Lewis, 1967:33-34)는 “우리의 여가는, 심지어는 놀이라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 세상에는 중립적인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치라도,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주장하던지, 아니면 사탄이 주장한다....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을 선택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했다.

또한 레저는 학습행위이므로 먼저 가정에서 여가활동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레저활동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사교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할 줄 아는 것이 찬송 부르고 기도 하는 것 밖에 없다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다(이경열, 1990).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공유하는 취미활동을 함께 나누도록 권장해야 한다(이한민, 1990). 정부도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스포츠를 통해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했던 구공산권 국가들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 더 따기 위해서 또는 월드컵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기독교적지 못하다. 국민 모두가 건전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 시설과 운동장을 동네마다 만들고,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 주고, 가족 단위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시되는 것이 더 기독교적이다.

참고문헌

- 고용수 (1986), “휴식과 수련을 위한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빛과 소금』, 1986년8월호, 118-119.
- 김승욱 (1986a), “여가를 즐길까, 돈을 더 벌까 (일과 여가에 대하여(1)), 『복음과 상황』, 1996/7, 119-225.
- 김승욱 (1986b),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일과 여가에 대하여(2)), 『복음과 상

- 황』, 1996/8, 98-106.
- 김승욱 (1985c), "교회는 왜 여가 활동에 소극적인가? (일과 여가에 대하여(3)), 『복음과 상황』, 1996/10, 106-111.
- 김승욱 (1992), "직장 그리스도인의 여름휴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소식지』, 1992/7.
- 김승욱-유해신 (2002) "노동관의 제 유형과 성경적 노동관," 『신앙과 학문』, 7(1), 9-37.
- 김의원 (1990), "성경과 역사 속에 나타난 유대인의 놀이문화," 『빛과 소금』, 1990/7, 60-63.
- 김정관 (1985), "우리 가정의 휴가다운 휴가," 『빛과 소금』, 1985/7, 91.
- 박석규 (1985), "교회 안에서 여름휴가의 선용," 『빛과 소금』, 1985/7, 77-79.
- 배정훈 (1996), "계층별 수양회 프로그램 - 중고등부 : 주님 사랑 깨닫는 인생 최대의 시간," 『빛과 소금』, 1992/6, 99-101.
- 변재창 (1985), "낮설은 휴가, 안식년," 『빛과 소금』, 1985/7, 83-86.
- 심창섭 (1990), "놀이와 윤리의 조화, 청교도 놀이문화," 『빛과 소금』, 1990/7, 64-67.
- 원한광 (1985), "주일과 휴가를 이렇게 보낸다," 『빛과 소금』, 1985/7, 93.
- 유방열 (1985), "인생의 의미를 찾는 휴가," 『빛과 소금』, 1985/7, 92.
- 이경열 (1990), "놀이문화의 정착과 크리스천의 역할," 『빛과 소금』, 1990/7, 68-71.
- 이나경 (1990), "크리스천 놀이문화의 현주소," 『빛과 소금』, 1990/7, 56-59.
- 이대희 (1996), "수양회의 어제와 오늘," 『빛과 소금』, 1992/6, 92-96.
- 이상원 (2004), 『주5일 근무제와 주일성수』, 총신대학교 출판부.
- 이윤국 (1990), "크리스천 놀이문화' 이렇게 펼쳐자," 『빛과 소금』, 1990/7, 72-75.
- 이한민 (1990), "즐거웁 놀이문화를 누리는 크리스천들," 『빛과 소금』, 1990/7, 76-79.
- 임영수 (1985), "성경에서 말하는 휴식," 『빛과 소금』, 1985/7, 74-76.
- 임종표 (1985), "선교사와 안식," 『빛과 소금』, 1985/7, 88-89.
- 임택진 (1986), "휴일을 잃어버린 크리스천," 『빛과 소금』, 1986/6, 112-113.
- 정태일 (1990), "놀이와 경배는 하나다," 『빛과 소금』, 1990/7, 80-83.
- 토우르니에, 폴, 정동섭 옮김(2001), "현대인의 피로와 휴식, 『나침반출판사』, 2001/1.
- 홍정길 (1985), "안식년을 마치고," 『빛과 소금』, 1985/7, 87.
- 황화자 (1996), "교회 수양회 이렇게 하자 - 영성훈련 중심의 수양회," 『빛과 소금』, 1996/6, 106-109.

Adams, Thomas (1861), *The Works of Thomas Adams*, Edinburgh: James Nichols.

Aristotle, (1952), *Nicomachean Ethics, in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ed.

- Robert M Hutchins, Chicago: Encyclopedia Britannica, 9:432.
- Augustinus, Aurelius (397-400), *Confessions*, . 김광채 역 (2004), 『고백록』, 기독교 문서선교회.
- Brailsford, Dennis (1969), *Sport and Society*, Elizabeth to Ann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Brightbill, Chales (1960), *The Challenge of Leisure,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 Calvin (1972),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Michigan: Eerdmans.
- Cox, Harvey (1969), *The Feast of Fools: A Theological Essay on Festivity and Fantasy*, New York: Harper and Row.
- de Grazia, Sebastian (1962), *Of Time, Work, and Leisure*,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 Dumazedier (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trans. Stewart E. McClure (New York: Free Press).
- Gataker, Thomas (1632), *The Joy of the Just*, London: Fulke Clifton.
- Gibbs, Nancy (1989), "How America Has Run Out of Time," *Times*, 1989, 4, 24.
- Glasser, Ralph (1976), "Leisure Policy, Identity and Work," in *Work and Leisure*, ed. J. T. Haworth and M. A. Smith, Princeton: Princeton Book Company.
- Godbey, Robert (1980), *Leisure in Your Life: An Exploration*, Philadelphia: Saunders College.
- Huizinga, Johan (1950), *Homo Ludens: A Study of the lay-Element in Culture* (1950: reprinted, Boston: Beacon Press, 1955), 김윤수 역(1993), 『호모 루덴스: 놀이와 문화에 관한 한 연구』, 까치.
- Johnston, Robert K. (1983), *The Christian at Play*, Grand Rapids: Eerdmans.
- Kelly, John (1983), *Leisure Identities and Interactions*, London: Allen and Unwin.
- Kelly, John R.(1982), *Leisur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 Lee, Robert Lee (1964), *Religion and Leisure in America*, Nashville: Abingdon.
- Leich, Robert B. (2000), *The Future of Success*, 오성호 역 (2001), 『부유한 노예』, 김영사.
- Lewis, C. S. (1967), *Christian Reflections*, Grand Rapids: Eerdmans.
- Marshall, Paul (1989) "소명, 노동 그리고 쉼" 『폴 마셜 글모음』, IVP.
- More, Thomas (1516), *Utopia*, 나종일 역 (2005), 『유토피아』.

- Niebuhr, Helmut Richard (1986),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1951),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Parker, Stanley (1976), *The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cations Service.
- Perkins, William (1631), *The Whole Treatise of the Cases of Conscience, in Works*, London: John Legatt.
- Pieper, Josef (1998), *Leisure: the Basis of Culture, South Bend* St. Augustine's Press.
- Piper, John (2008), *Desiring God: Meditations of a Christian Hedonist*, 3rd ed. Multnomah.
- Ryken, Leland (1995), 『Redeeming The Time: A Christian Approach to Work & Leisure』, Baker Books.
- Wagner, Hans-Peter (1982), *Puritan Attitudes towards Recreation in Early Seventeenth-Century America*, Frankfurt: Verlag Peter Lang.

Abstract

Changes in the Perspectives on Leisure and Reformed Viewpoint on Leisure

Seung-Wook Ki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changes in the secular and Christian viewpoints on leisure and to show the reformed viewpoint. It is stressed that leisure can be defined as spare time, activity and satisfaction, and the roles of leisure are for rest, for pleasure and for personal development.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of viewpoints on leisure was examined through ancient perspectives of Greece and Rome, Medieval perspective of Roman Catholic, and modern perspective of the Renaissance and the utilitarianism. After then, the secular perspective of leisure in labor economics model is criticized.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viewpoints on leisure was investigated through early church period, middle ages and Puritan. It is also explained that the strong and week points of Puritan, and the reason why modern churches have negative views on leisure. To explain the desirable viewpoint on leisure of Christian, the biblical view on rest and the Sabbath is explained. In conclusion it is explained that what is the most important points for Christian viewpoints on leisure.

* Professor of Chungang University

Key words: Leisure, Viewpoints on leisure, Sabbath,
Rest, Reformed view.